

혁신형 치료제 게임 체인저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코스닥 예비청구'

▶ 내시경용 지혈재, 혈관색전 미립구,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제 등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핵심 기술 선도

▶ 美 메드트로닉과의 협업 강화 및 융복합 메디컬 솔루션 기업으로 지속성장

<2023-11-01> 혁신형 치료제 히든 챔피언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코스닥 상장절차에 돌입했다.

혁신형 치료제 개발 및 수출하는 (주)넥스트바이오메디컬(대표이사 이돈행, 이하 넥스트바이오)은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식 밝혔다.

지난 9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후 2개월 만이다.

금번 넥스트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2014년 설립된 넥스트바이오는 고분자 및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재료를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다. 설립 후 의료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내시경용 지혈재(Nexpowder), 혈관색전 미립구(Nexsphere),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제 "Nexsphere-F" 등)을 개발했고, 국내 허가, 유럽 CE 인증, 미국 FDA 인증을 통한 제품의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의료솔루션 다국적기업인 미국 메드트로닉(Medtronic)과 긴밀한 사업파트너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Game changer(게임체인저)'로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속분해성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제 (Nexsphere™-F) 개발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은 이미 한국과 유럽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관절염 색전 시술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해 시판 후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임상 근거 확보와 추가 글로벌 인증(미국, 일본)을 위해 해외 임상 진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넥스트바이오는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Standard-of-Care(표준치료)' 등재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넥스트바이오 이돈행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글로벌 사업화에 박차를 가해 융복합 메디컬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코스닥상장까지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해 투자자와 성장 결실을 나누고 동반 성장하는 건실한 기술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자료문의: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득춘 이사, 박정아 매니저(032-880-0813)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10-3686-2279), 김혜겸 매니저 Tel: 070-5068-6329